



## 인도 국민건강기록 디지털화에 따른 보험회사 영향

김유미 연구원

인도 정부는 디지털 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(NDHM)을 발표함. 개인정보 및 의료기록은 모든 국민에게 배포된 건강ID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저장되며 정부 및 의료제공자, 보험회사에게는 열람 권한이 있음. 인도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디지털 플랫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우려되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의료 이해관계자 간 정보 격차가 줄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위험률 관리, 상품개발 및 헬스케어서비스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

### ■ 인도 정부는 2020년 8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(NDHM)을 발표함<sup>1)</sup>

- 인도의 보건당국(NHA)은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존 디지털 신분증인 아드하르(Aadhaar)<sup>2)</sup> 또는 휴대번호에 연결하여 개인 고유의 14자리 건강ID를 배포함
- 디지털 플랫폼은 건강ID, 디지닥터(DigiDoctor)<sup>3)</sup>, 개인건강기록(PHR) 및 전자의료기록(EMR), 의료시 설등록(HFR)으로 구성되며, 원격의료(Telemedicine), 온라인 약국(E-pharmacy)으로 확대될 예정임
-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개인정보 및 의료기록은 정부, 의사 및 의료제공자, 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,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접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- 단, 의료정보 공개 범위는 개인의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동의를 얻은 의사 및 의료제공자, 보험회사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

### ■ 보험회사는 개인의 동의하에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위험률 관리 및 언더라

- 1)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(2020. 8. 15), "Government of India releases the Draft Health Data Management Policy of the 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 for public consultation"
- 2) 2009년에 도입된 아드하르(Aadhaar)는 지문, 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포함한 12개의 개인 고유번호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임
- 3) 디지닥터(DigiDoctor)에는 의사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가 등록되며, 등록된 의사들에게는 처방전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디지털 서명이 제공되고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권한, 원격의료 등 가능해짐

이팅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

-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의료 증가 및 건강검진 수검률이 하락하면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전화 및 화상을 통해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인도 손해보험회사 Bajaj Allianz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수한 보험계약 중 95%가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언더라이팅한 것으로 나타남<sup>4)</sup>
- 보험회사는 디지털 플랫폼에 저장된 개인의 의료기록을 통해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가능성을 줄여 언더라이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적 보장뿐만 아니라 사전적 질병 예방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
■ 한편, 인도는 아직까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고 지역 간 건강의료시스템이 상이하며, 디지털 플랫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- 인도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공공병원과 진료소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제한적이며, 지역 간 건강의료시스템이 상이하여 의료정보를 표준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
- 정부의 통제하에 건강ID가 관리되거나 병력 및 기타 세부정보가 포함된 개인 의료기록이 병원, 약국, 보험회사 등 민간 기업에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·남용될 가능성이 있음
-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당초의 목표인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데이터 집적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  - 디지털 플랫폼에는 신체 및 정신건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및 결제 수단 등의 금융 정보, 종교적 또는 정치적 성향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저장됨

■ 건강기록의 디지털화는 헬스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엔드 투 엔드(end-to-end)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 및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 인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편이며, 최근에는 원격의료 도입<sup>5)</sup>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
- 건강기록의 디지털화는 환자의 진료 및 의료기록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역 어디에서나 진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, 원격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
-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보험회사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개인에게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엔드 투 엔드(end-to-end)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**kiri**

4) moneycontrol(2020. 8. 21), "Coming soon: A digital health card that would have all your medical records"

5) 인도 보건당국(NHA)은 지난 3월 말 감염병 이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전화, 비디오 및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한 '원격의료 가이드라인 2020'을 발표함